

유란시아서

<< [제 92 편](#) | [부분](#) | [내용](#) | [제 94 편](#) >>

제 93 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93:0.1 (1014.1) **멜기세덱**은 비상시 아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한 지역 우주의 여러 세계에서 놀라운 범위의 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시도해야 할 때, 아주 흔히 **멜기세덱**이 그 과제를 받아들인다. **멜기세덱** 아들이 비상시에, 그리고 우주의 널리 다양한 수준에서, 아니 성격을 나타내는 육체 수준에서도 활동하는 능력은 그들 계급에 특이하다. 오로지 **생명 운반자**가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변형하는 범위 안에서 성격 활동을 함께 한다.

93:0.2 (1014.2) **멜기세덱** 계급의 우주 아들은 **유란시아**에서 대단히 활발했다. 12명의 한 집단이 **생명 운반자**들과 함께 봉사했다. 후일에 있었던 12명의 집단은 **칼리가스티아** 탈퇴가 있는 바로 뒤에 너희 세계의 관리자가^[103] 되었고, **아담**과 **이브**의 시절까지 줄곧 권한을 쥐었다. 이 열두 **멜기세덱**은 **아담**과 **이브**의 실수가 있고 나서 **유란시아**로 돌아왔고, 그 뒤로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서,

직함으로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가 된 날까지, 행성 관리자로서 계속하였다.

1. 마키벤타의 육신화

93:1.1 (1014.3)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임무가 실패하고 난 다음 수천 년 동안에, 계시된 진실은 소멸될 위협을 받았다. 비록 머리가 진보하기는 했어도, 인간 종족들은 천천히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기원전 약 3000년에 하나님 개념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무척 흐릿하게 되었다.

93:1.2 (1014.4) 멜기세덱 관리자 12명은 미가엘이 앞으로 그들의 행성에 수여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지 몰랐다. 따라서 그들은 엄숙한 회의를 열었고, 유란시아에서 진실의 빛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탄원했다. 이 간청은 “사타니아의 606번 세계에서 사무의 운영은 온전히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권한에 속한다”는 지시와 함께 기각되었다. 다음에 관리자들은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수여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 스스로 선택한 방식대로 계속하여 진실을 지켜야 하고, 이 수여 아들은 “몰수되고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행성의 여러 직함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만 겨우 받았다.

93:1.3 (1014.5) 자신들의 수단을 이용하라고 아주 완전히 내던져진 결과로서, 행성 관리자 12명 중의 하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온 네바돈 역사에서 꼭 여섯 번만 행한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다. 이것은 땅에서 그 영역에 임시 인간으로서 인격화하는 것, 세상에 봉사하는 비상시(非常時) 아들이자 자신을 수여하는 것이었다. 구원자별 당국은

이 모험을 허가했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실제 육신화는, **팔레스타인**에서 앞으로 **살렘** 시가 되기로 예정된 곳 가까이에서 이루어졌다. 행성 관리자들은 **생명 운반자**와 어떤 **물리 통제사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거주하는 다른 하늘 성격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이 **멜기세덱** 아들을 육신으로 만드는 사무 전체를 끝마쳤다.

2. 살렘의 현자

93:2.1 (1015.1) **마키벤타가 유란시아의 인류에게 수여된 것은 예수**가 태어나기 1973년 전이었다. 그가 온 것은 볼만한 구경거리는 아니었고, 그가 물질화되는 것을 인간의 눈이 구경하지 못했다. 그가 **암돈**의 텐트에 들어간 그 중대한 날에 필사 인간이 그를 처음으로 지켜보았고, **암돈은 수메르인** 핏줄을 가진 **갈대아인** 목자였다. 그의 임무의 선포는 이 목자에게 간단히 이른 말씀에 나타나 있다, “나는 **멜기세덱**이요, **엘 엘리온**, **최고자**,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사제이라.”

93:2.2 (1015.2) 그 목자가 놀랐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이 낯선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캐물은 뒤에, 그는 **멜기세덱**에게 자기와 저녁을 같이 들자고 청했다. 이것이 **마키벤타**가 그의 오랜 우주 경력에서 물질 음식을 처음으로 먹은 것이요, 물질 영양은 물질 존재로서 94년의 일생을 통해서 그를 유지하게 되었다.

93:2.3 (1015.3)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별 빛 아래서 이야기하는 동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사명을 시작했다. 그때 팔을 휘두르면서 **암돈**을 향해서 말했다. “**엘 엘리온**, **최고자**는

하늘에 있는 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땅까지도 지으신 신성한 창조자요, 또한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

93:2.4 (1015.4) **멜기세덱**은 자기 둘레에, 나중에 **살렘** 공동체의 핵심을 이룬 한 무리의 생도와 제자와 신자들을 몇 년 안에 모았다. 그는 곧 **팔레스타인**에서 두루, **엘 엘리온 최고자**의 사제, **살렘**의 현자로서 이름이 알려졌다. 둘러싼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 그는 흔히 **살렘**의 족장, 곧 임금으로 언급되었다. **살렘**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뒤에 **예부스**시가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장소였다.

93:2.5 (1015.5) 개인적 모습을 보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혼합된 **노** 민족과 **수메르** 민족을 닮았고, 키가 거의 180센티미터이고 위엄 있는 모습이였다. 그는 **갈대아어**와 기타 여섯 가지 말을 했다. 가슴에 세 동심원의 상징을 지닌 것을 제외하고, 그는 **가나안** 사제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었는데, 세 동심원은 **사타니아**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상징이였다. 그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추종자들은 이 세 동심원의 표시를 너무나 거룩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결코 감히 그 표시를 쓰지 않았는데,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곧 잊게 되었다.

93:2.6 (1015.6) **마키벤타**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았어도, 결코 결혼하지 않았고, 땅에서 자손을 남길 수도 없었다. 그의 육체는, 남자의 몸을 닮기는 했지만, 어느 인종의 생명질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칼리가스티아 영주** 참모진의 물질화된 참모 1백인이 사용한 몸, 특별히 지어진 종류의 몸이였다. **유란시아**에는 생명나무도 없었다. **마키벤타**가 땅에서 얼마큼 오랫동안 남아 있었더라면, 그의 신체 작용은 차츰 나빠졌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그는 물질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기 오래 전에, 94년에 걸친 자신 수여 임무를 끝마쳤다.

93:2.7 (1016.1) 육신화된 이 **멜기세덱**은 **생각 조절자**를 받았는데, 이 **조절자**는 시간 세계의 훈계자요 육체의 조언자로서 그의 초인간 성격에 깃들었고, 이렇게 **유란시아** 문제들과 육신화된 **아들** 안에 거하는 기법에 대하여, 체험과 실용적 첫걸음을 거쳤다. 이것은 이 **아버지** 영으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이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땅에 나타났을 때 그의 인간 지성 속에서 아주 용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두 지성 속에서 일찍이 활동한 유일한 **생각 조절자**이지만, 두 지성은 인간다울 뿐 아니라 신다웠다.

93:2.8 (1016.2)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마키벤타**는 행성 관리자 집단의 동료 11명과 완전히 연락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계급의 하늘 성격자들과 교통할 수 없었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을 제쳐 놓고, 그는 사람보다 초인간 지성 존재들과 더 접촉하지 않았다.

3. 멜기세덱의 가르침

93:3.1 (1016.3) 10년이 지나자,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여러 학교를 세웠고, 둘째 **에덴**에서 옛날 **셋** 족속 사제들이 개발한, 오래 된 체제를 모방하여 학교를 만들었다. 나중에 개종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시작한 십일조 체제의 개념조차, 또한 옛날 **셋** 족속 풍습의 남은 전통으로부터 내려왔다.

93:3.2 (1016.4) **멜기세덱**은 유일한 **하나님**, 우주의 신 개념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놀라시아덱의 별자리 아버지**와 연결짓도록 버려두었고, 그는 이 **아버지**를 **엘 엘리온** — **최고자**라고 불렀다. **멜기세덱**은 **루시퍼**의 지위와 **예루셈** 사무의 상태에 관하여 거의 입을

다물었다. **체계 군주 라나포지**는 **미가엘**의 수여가 끝날 때까지 **유란시아**와 거의 상관하지 않았다. **살렘**의 학생들 대다수에게 **에덴시아**는 하늘이었고, **최고자**는 **하나님**이었다.

93:3.3 (1016.5) 세 동심원의 상징은 **멜기세덱**이 자신 수여의 표시로 채택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 천사 · **하나님**의 세 왕국을 대표한다고 풀이했다. 그들은 이 믿음을 계속 가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이 세 동그라미가 신성하게 유지하고 지휘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우주적인 성질을 상징한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조차 **최고자** 세 분이 하나로서 활동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징을 **에덴시아**의 **최고자** 세 분을 대표한다고 여겼다. **멜기세덱**은 그의 표시가 상징하는 **삼위일체** 개념을 가르친 한도에서, 보통 이를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보론다덱** 통치자 세 분과 관련 지었다.

93:3.4 (1016.6) **멜기세덱**은 **에덴시아** **최고자** — **유란시아**의 신들 — 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층 계급의 추종자들을 가르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은 지역 우주의 운영과 조직을 포함하여 상급 진실을 가르쳤고, 한편 명석한 제자 **켄** 사람 **노르단**과 그 집단에 속한 열심 있는 학생들에게 그는 초우주에 대하여, 그리고 **하보나**도 포함하여, 진실을 가르쳤다.

93:3.5 (1016.7) **멜기세덱**은 **카트로**의 가족과 함께 30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는데, 그 가족의 식구들은 이 상급 진실을 많이 알았고, 그들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아니 그들의 뛰어난 후손 **모세**의 시절까지도, 그 진실을 지속하였다. **모세**는 어머니 편에서 다른 근원을 통해서만 아니라, 이쪽, 그의 아버지 편에서도, 이처럼 **멜기세덱** 시절부터 물려 받은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93:3.6 (1016.8) **멜기세덱**은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늘과 땅에 대하여, 사람 · **하나님** · 천사에 관한 현대의 많은 종교 관념조차 이 **멜기세덱**의 가르침과 그다지 멀지 않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생은 모든 것을 한 **하나님**, 우주의 신, 하늘에 계신 **창조자**, 신성한 **아버지** 교리 밑에 종속시켰다. 사람이 찬미하라고 호소할 목적으로, 그리고 바로 이 **우주의 아버지**의 아들로써 **미가엘**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길을 예비할 목적으로, 이 가르침이 강조되었다.

93:3.7 (1017.1) **멜기세덱**은 어느 앞날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온 것처럼 육체를 입고 오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나리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것이 어째서 후일에 수많은 선생이 **예수**가 “언제까지나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는” 사제, 곧 봉사자라고 주장한 까닭이다.

93:3.8 (1017.2) 따라서 **멜기세덱**은 유일한 **하나님**의 실제 **파라다이스 아들**의 수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세계 추세의 일신교 단계를 준비하였다. 그는 이 **하나님**이 만물의 **아버지**라고 뚜렷하게 묘사하였고 이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간단한 조건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땅에 나타났을 때,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관하여 **멜기세덱**이 가르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4. 살렘의 종교

93:4.1 (1017.3) **살렘**의 예배 예식은 무척 간단했다. **멜기세덱** 교회의 진흙 서판 명부에 서명하거나 표시한 사람은 누구나 다음 신조를 외우고 동의했다:

93:4.2 (1017.4) 1. 나는 **엘 엘리온**, **최고자 하나님**, 만물의 유일한 **우주의 아버지**요 **창조자**를 믿는다.

93:4.3 (1017.5) 2. 희생물과 태운 제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린다고 **멜기세덱**이 **최고자**와 한 언약을 나는 믿는다.

93:4.4 (1017.6) 3. 나는 **멜기세덱**의 일곱 계명에 복종하고, **최고자**와 이렇게 약속했다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을 약속한다.

93:4.5 (1017.7) 이것이 **살렘** 부락 교리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렇게 짧고도 단순한 믿음의 선언조차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고 앞선 것이었다. 그들은 다만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 믿음으로 — 신의 은총을 얻는다는 개념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이 신들에게 벌금을 물어야 할 신세를 타고났다는 믿음을 너무나 깊이 확신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사제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 즉 신의 은총이 **멜기세덱**의 언약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건성으로 믿었고, 이조차 “옳게 여김을” 받았다.

93:4.6 (1017.8) **멜기세덱**이 선포한 칠계명은 옛날 **달라마시아** 최고 법의 순서를 따라서 모습을 갖추었고, 첫째와 둘째 **에덴**에서 가르친 칠계명과 무척 비슷했다. **살렘** 종교의 이 명령은 다음과 같았다:

93:4.7 (1017.9) 1.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최고 **창조자**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93:4.8 (1017.10) 2. 믿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유일한 요구 조건임을 의심하지 말라.

93:4.9 (1017.11) 3. 거짓 증언하지 말라.

- 93:4.10 (1017.12) 4. 사람을 죽이지 말라.
- 93:4.11 (1017.13) 5. 흠치지 말라.
- 93:4.12 (1018.1) 6. 간음하지 말라.
- 93:4.13 (1018.2) 7. 너희 부모와 장로들에게 불경함을 보이지 말라.

93:4.14 (1018.3) 어떤 희생을 바치는 것도 그 부락 안에서 허락되지 않았지만, **멜기세덱**은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을 갑자기 뿌리뽑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잘 알았고, 따라서 고기와 피를 바치는 예전의 제사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성찬으로 대신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제안하였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더라” 하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조심스러운 개혁조치 아주 성공하지는 않았다. 여러 부족은 모두 **살렘** 교외에서 보조 중심들을 유지했고, 거기서 희생물과 태운 제물을 바쳤다. **케도라오머**에게 승리한 뒤에, **아브라함**도 이 미개한 풍습에 의존하였다. 그는 전통적 희생을 바칠 때까지 다만 속이 아주 편치 않았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까지 포함하여, 추종자들의 종교 관습에서 희생물 바치는 이 성향을 완전히 없애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93:4.15 (1018.4) **예수**처럼, **멜기세덱**은 엄격하게 그의 수여 임무를 마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도덕 관습을 개혁하고 세상의 관습을 바꾸려 애쓰지 않았고, 상급의 위생 관습이나 과학적 진실을 선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두 가지 과제를 이루려고 왔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는 진실을 땅에서 살려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우주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이 나중에 사람으로서 자신 수여하는 것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93:4.16 (1018.5)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94년 동안 계시된 기본적 진실을 가르쳤고, 이 기간에 **아브라함**은 세 번에 나누어 **살렘** 학교를 다녔다. 그는 마침내 **살렘**의 가르침으로 개종하였고, **멜기세덱**의 가장 명석한 생도이자 주요한 지지자의 하나가 되었다.

5. 아브라함을 고르다

93:5.1 (1018.6) “선택된 민족”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일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된 사람이라 언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그때 유행하는 여러 신을 믿는 신앙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는 진실을 살려 두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93:5.2 (1018.7) **마키벤타**가 활동할 장소로서 **팔레스타인**을 선택한 것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인간 가족과 접촉을 시작하려는 희망에 얼마큼 근거를 두었다. **멜기세덱**이 육신화할 때,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살렘**의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똑같이 잘 된 많은 가족이 땅에 있었다. 홍인과 황인, 그리고 서쪽과 북쪽으로 **안드** 족속 후손들 사이에, 똑같이 자질을 가진 가족들이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장소들 중에 어디도 지중해의 동쪽 바닷가만큼, 땅에서 **미가엘**이 나중에 나타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에서 **멜기세덱**이 선교하고 나중에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 **미가엘**이 나타난 것은 적지 않게, 지리(地理)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세계에서 당시에 존재했던 무역 · 여행 · 문명과 관련하여 중앙에 자리잡았다는 사실로 결정되었다.

93:5.3 (1018.8) 한동안 **멜기세덱** 관리자들은 **아브라함**의 선조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세대에서 지능과 창의력이 있고

지혜롭고 성실한 특징을 가진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기대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이러한 기대를 채웠다. **테라**의 이 다능한 아이들과 접촉하는 이 가능성이 바로 **마키벤타**가 **에집트**나 **중국**이나 **인도**나 또는 북쪽 부족들 사이가 아니라 **살렘**에 나타난 것과 상당히 상관이 있었다.

93:5.4 (1019.1) **테라**와 그의 온 가족이 **살렘** 종교로 건성으로 개종하였고, 이 종교는 **갈대아**에서 전파되었다. 그들은 **오비드**의 설교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소식을 들었는데, **오비드**는 **우르**에서 **살렘**의 교리를 선포한 **페니키아**인 선생이었다. 그들은 곧장 **살렘**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이 **멜기세덱**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도가 미지근했고 그들에게 **하란**에서 머물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지 오래 지나서야 그들은 가져온 가족 신들을 기꺼이 모조리 깨뜨렸다. 그들은 **살렘**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을 버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

93:5.5 (1019.2)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죽고 몇 주 지난 뒤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나홀** 두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려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 **헛** 사람 **야람**을 보냈다. “**살렘**으로 오라,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창조자에 관한 진실 가르치는 것을 들을지니, 너희 두 형제의 깨우친 자손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나홀**은 **멜기세덱** 복음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는 뒤에 남아서 그의 이름을 지닌 강력한 도시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함께 **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93:5.6 (1019.3) **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롯**은 도시 가까이 있는 산지의 요새를 골랐고, 거기서 그들은 북쪽 침공자들의 잦은 기습에 대비하여 방어할 수 있었다. 이 때에 **헛** 족속, **아씨리아인** · **필리스티아인**, 그리고 기타 집단이 중부와 남부

팔레스타인의 부족들을 항상 침공했다. 산지에 있는 본거지로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살렘**까지 자주 찾아갔다.

93:5.7 (1019.4) **살렘** 가까이에 자리잡은 지 오래지 않아 **아브라함**과 **롯**은,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 공급을 확보하려고 **나일** 강 유역까지 여행했다. **에집트**에서 잠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에집트** 왕좌에 있는 먼 친척을 발견했고, 그는 이 임금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령관으로 일하여 군사적 토벌에 대단히 성공했다. **나일** 강 지역에 머무르던 후반기에 그와 아내 **사라**는 궁중에서 살았고, **에집트**를 떠날 때, 그의 군사 작전에서 얻은 전리품의 한 몫을 받았다.

93:5.8 (1019.5) **아브라함**이 **에집트** 궁중의 명예를 떨쳐 버리고 **마키벤타**가 후원하는 더 영적인 일로 돌아가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에집트**에서도 존경을 받았고, **파라오** 앞에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살렘**의 운동에 대해서 서약한 것을 실행하라고 힘차게 밀어주었다.

93:5.9 (1019.6) **아브라함**은 임금의 포부를 가졌고, **에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온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민족을 **살렘**의 통치 하에 두자는 계획을 **롯** 앞에 펼쳐 놓았다. **롯**은 장사에 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긴 뒤에, 그는 무역과 축산업에 종사하려고 **소돔**으로 갔다. **롯**은 군인이나 양치기의 생활을 싫어했다.

93:5.10 (1019.7)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의 군사 계획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는 **살렘** 지역에서 국가 통치자로서 곧 인정을 받았고, 근처의 일곱 부족을 그의 지휘 하에 연합했다. 정말로 **멜기세덱**은 가까스로 **아브라함**을 제어하였고, **아브라함**은 나가서

칼로 이웃 부족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에게 이처럼 **살렘**의 진리를 더 빨리 알리려는 열심에 불타 있었다.

93:5.11 (1019.8) **멜기세덱**은 모든 둘러싼 부족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군사 우선주의자가 아니었고, 여러 군대가 이리저리 이동하는 동안에 어떤 군대의 공격도 받은 적이 없었다. 나중에 실행된 바와 같이, 그는 **아브라함**이 **살렘** 방어 정책을 세우는 것을 전부 마음에 들어했지만, 야심에 불타는 생도의 정복 계획을 승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계가 우호적으로 단절되었고, **아브라함**은 군사 본부를 세우려고 **헤브론**으로 갔다.

93:5.12 (1020.1) **아브라함**이 훌륭한 **멜기세덱**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둘레에 있는 작은 나라의 임금들보다 큰 이점을 가졌다. 그들은 모두 **멜기세덱**을 존중했고, 지나치게 **아브라함**을 무서워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함을 알았고, 이웃을 공격할 적당한 기회를 노릴 뿐이었다. 이 통치자들 중에 더러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재산을 주제넘게 침공했을 때, 이런 핑계가 생겼다. 이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연합한 일곱 부족의 선두에서, 적을 공격했다. 318명이 되는 자신의 경호단이, 이때 공격한 4000명이 넘는 군대를 지휘하였다.

93:5.13 (1020.2)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말리려고 떠났지만, 옛 생도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야 겨우 그를 따라잡았다. **아브라함**은 **살렘**의 **하나님**이 그가 적들을 이기게 해주었다고 주장했고, 자기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살렘**의 금고에 내겠다고 고집하였다. 나머지 90퍼센트는 **헤브론**에 있는 그의 수도로 옮겼다.

93:5.14 (1020.3) **싯딤**에서 이 전투가 있는 뒤에, **아브라함**은 열한 부족으로 이루어진 둘째 연방의 지도자가 되었고,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칠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다른 부족들도 모두 똑같이 하도록 처리했다. 소돔의 왕과 가진 외교 거래는, 대체로 그를 두렵게 여기는 태도와 더불어, 소돔 임금과 다른 사람들이 **헤브론**의 군사 연방에 합세하게 만들었다. **팔레스타인**에서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과제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한창 진전을 보았다.

6.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서약

93:6.1 (1020.4) **아브라함**은 온 **가나안**을 정복할 꿈을 꾸었다. **멜기세덱**이 그 사업을 인가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결심을 겨우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거의 작정했을 때, 이 계획한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를 이어받을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비로소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멜기세덱**과 또 한 번 회담을 주선했다. 이 회견의 과정에서 **살렘**의 사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늘나라의 영적 개념의 편을 들어, 물질적으로 정복하고 현세에 다스리는 그의 계획을 버리라고 설득했다.

93:6.2 (1020.5) **멜기세덱**은 **아모리** 연방과 싸우는 것이 헛되다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했지만, 이 뒤떨어진 씨족들은 어리석은 풍습 때문에 확실히 자살하는 것이라, 그래서 몇 세대 안에 그들이 너무나 약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동안에 크게 수가 늘어나고 그들을 쉽사리 정복할 것이라고 **멜기세덱**은 똑같이 분명하게 일러주었다.

93:6.3 (1020.6)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과 공식 서약을 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할 수 있거든 별을 세어 보아라. 그렇게 네 씨가 많게 될지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믿었고, “이것은 그의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에 **멜기세덱**은 그의 자손이 **에집트**에서 머무른 뒤에 **가나안**을 미래에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일러주었다.

93:6.4 (1020.7)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겠다고 찬성하는 협정, 신과 인간 사이의 위대한 **유란시아** 협정이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찬성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구원은 오직 일하여 — 희생물과 제물을 바쳐서 — 얻을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이제 **멜기세덱**은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얻으리라는 좋은 소식을 **유란시아**에 다시 가져왔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복음은 너무 앞선 것이었다. 나중에 **셈** 부족 사람들은 더 예전의 희생물 바치기와 피를 흘려 죄값 물어내기로 돌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93:6.5 (1021.1) 이 서약을 한 뒤에 오래지 않아서, **멜기세덱**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출생한 뒤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한 약속에 대해서 대단히 엄숙한 태도를 가졌고, 이를 기록하려고 **살렘**으로 갔다. 대중 앞에서 공식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서, 그는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갈았다.

93:6.6 (1021.2) **살렘** 신자의 대부분은 할례를 행하였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결코 할례를 의무로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나 할례를 무척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는 이 계제에 **살렘**의 약속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이 의식(儀式)을 공식으로 받아들여 그 사건을 엄숙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

93:6.7 (1021.3) **멜기세덱**의 원대한 계획을 지지하여 **아브라함**이 개인의 포부를 이렇게 정말로 대중 앞에서 포기한 뒤에, 세 하늘 존재가 **마르레** 평원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연의 재해로 파괴된 것에 관하여 나중에 꾸민 이야기들과 결부되었는데도, 이것은 사실로 나타난 일이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이 전설은 아주 최근 시대에도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뒤쳐졌는가를 가리킨다.

93:6.8 (1021.4) 엄숙한 언약을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화해는 완벽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살렘** 거류지의 민간 및 군사의 지휘를 다시 맡았고, 이 거류지는 그 전성기에 **멜기세덱** 단체의 명부에, 정기적으로 십일조 내는 사람을 10만 명이 넘게 유지했다. **아브라함**은 **살렘** 성전을 크게 개선하고 학교 전체를 위하여 새 텐트를 마련했다. 그는 십일조 체제를 늘렸을 뿐 아니라, 선교를 선전하는 분과의 운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외에도, 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개량된 방법을 시작하였다. 그는 또한 가축의 개량과 **살렘**의 낙농 사업을 다시 조직하기 위해서 많이 일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날카롭고 능률 있는 실업가요 부자였다. 그는 지나치게 경건하지 않았어도 속속들이 성실했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믿었다.

7. 멜기세덱의 선교사

93:7.1 (1021.5) **멜기세덱**은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은 둘러싼 모든 부족에, 특별히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소 **아시아**에 침투했다. 몇십 년이 지나자, 이 선생들은

살렘으로부터 멀리멀리 여행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키벤타**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

93:7.2 (1021.6) **아담손**의 후예는 **반 호수**의 물가 근처에서 무리를 지어 있었고, 이들은 **살렘** 종파의 **헛** 족속 선생들의 말을 기꺼이 들었다. 예전에 이 **안드** 족속의 중심으로부터 **유럽**과 **아시아**의 먼 지역까지 선생들이 파송되었다. **살렘** 선교사들은 온 **유럽**, 아니 영국 제도에도 침투했다. 한 무리는 **페로스** 제도(諸島)를 거쳐서 **아이스랜드**의 **안돈** 족속에게로 갔고, 한편 또 한 무리는 중국을 통과하여 동쪽 섬들에 있는 일본인에게 이르렀다. **살렘**과 **메소포타미아**와 **반 호수**로부터 동반구의 부족들을 깨우치려고 모험의 길을 떠난 남녀의 생애와 체험은 인류의 연대기에서 영웅적인 장(章)을 이룬다.

93:7.3 (1022.1) 그러나 과제가 너무나 크고 부족들이 너무 뒤쳐져 있어서, 그 결과는 흐릿하고 분명치 않았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살렘**의 복음이 여기저기 투입되었지만,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고, 유일한 **하나님** 개념은 한 부족이나 민족 전체의 계속된 충성심을 모을 수 없었다. **예수**가 오기 오래 전에, 옛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은 더 오래 된 보편적 미신과 신앙 속에 대체로 파묻혔다. 최초의 **멜기세덱** 복음은 **큰 어머니**, 태양, 그리고 기타 옛 종파를 믿는 신앙 속으로 거의 온통 흡수되었다.

93:7.4 (1022.2) 오늘날 인쇄술의 장점을 누리는 너희는 이 옛 시대에 진실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새로운 교리를 놓치기가 얼마나 쉬웠는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새 교리가 예전의 종교적 가르침과 마술 풍습 덩어리 속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계시는 언제나 더 오래 된 진화된 신앙에 오염된다.

8. 멜기세덱이 떠나다

93:8.1 (1022.3)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얼마 안 있어, **마키벤타**는 **유란시아**에서 비상 수여를 마치기로 작정했다.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은 체재를 마치기로 결정한 것은 수많은 조건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은 둘러싼 부족들이, 그리고 직계 동료들조차, 그를 하나의 반신(半神)으로 여기고 그를 초자연 존재로 바라보는 성향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는 참으로 초자연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상당히 미신적 경외감으로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 외에, 유일한 **하나님**의 진실이 추종자들의 머리 속에 굳게 자리잡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죽는 때보다 훨씬 전에 땅에서 활동하던 장면을 떠나기를 바랐다. 따라서 **마키벤타**는 어느 날 밤에 인간 동반자들에게 잘 자라 인사를 하고 나서, **살렘**에서 그의 텐트로 물러갔다. 그들이 아침에 부르러 갔을 때, 그는 거기에 없었으니,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9. 멜기세덱이 떠난 뒤

93:9.1 (1022.4) **멜기세덱**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었다. 그가 온 것처럼 그는 언젠가 가야 한다고 추종자들에게 충분히 경고했어도, 그들은 놀라운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절의 전통을 기초로 하여 **모세**가 **에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살렘**에 세운 큰 조직은 거의 사라졌다.

93:9.2 (1022.5) **멜기세덱**이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큰 슬픔을 가져왔고, 그는 결코 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포부를 버렸을 때 그는 **헤브론**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의 동료가 사라지고 나서, 그는 **살렘**을 떠나서 **게랄**에, 그의 재산 근처에서 살려고 남쪽으로 갔다.

93:9.3 (1022.6) **멜기세덱**이 사라진 직후에 **아브라함**은 무서워지고 겁이 났다. **게랄**에 도착하자 그는 신분을 감추었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아내를 데려갔다. (**사라**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은 어느 날 밤 그의 찬란한 아내를 가지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엿들었다. 이 외에는 용감하고 위험을 겁내지 않는 그 지도자에게 이 두려움은 공포가 되었다. 온 일생 동안 그는 누군가 **사라**를 취하려고 몰래 그를 죽이려 할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것이 어째서 세 번이나 따로, 이 용감한 남자가 정말 비겁함을 드러냈는가 하는 까닭이다.)

93:9.4 (1023.1)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로서 자기 임무를 행하는 데 오랫동안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는 곧 **필리스티아인** 사이에서, 그리고 **아비멜렉**의 민족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얻고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그 대신에 그들의 많은 미신, 특히 첫아들을 잡아 바치는 그들의 풍습에 물이 들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팔레스타인**에서 큰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집단의 존경을 받았고 모든 왕이 그를 존중하였다. 그는 둘러싼 모든 부족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였고, 그의 영향은 그가 죽은 뒤에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인생이 저물 때 그는 다시 한 번 **헤브론**으로 돌아갔는데, 여기는 초기에 그의 활동 무대요 **멜기세덱**과 연합하여 그가 일하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일은 **메소포타미아**의 경계에, 아우 **나홀**의 도시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로서 자기 민족에서 여자를 얻으려고, 충직한 하인들을 보내는 것이었다.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오랫동안 **아브라함** 민족의 풍습이었다. 그리고 사라진 **살렘** 학교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믿고서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죽었다.

93:9.5 (1023.2) 다음 세대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5백 년 안에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 전부를 신화로 여겼다. **이삭**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썩 잘 보존했고, **살렘** 거류지의 복음을 키웠지만, **야곱**이 이 전통의 중요성을 파악하기는 더 힘들었다. **요셉**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고, 대체로 이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꿈꾸는 사람으로 여겼다. **에집트**에서 **요셉**의 명예는 주로 증조부 **아브라함**의 기억 때문이었다. **요셉**에게 **에집트** 군대의 지휘권이 제공되었지만, **멜기세덱**의 전통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후일에 가르친 것을 아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문관 행정가로서 일하기를 택했고, 하늘나라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이처럼 그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93:9.6 (1023.3)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충분하고 충만했지만, 이 시절에 관한 기록은 후일의 **히브리인** 사제들에게 불가능하고 환상인 듯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바빌론**에서 구약의 기록을 무더기로 편집할 때까지, 많은 사람이 이런 기록을 얼마큼 이해했다.

93:9.7 (1023.4)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라고 묘사하는 구약의 기록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회담이었다. 후일의 서기관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낱말을 **하나님**과 비슷한말로 여겼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천사”와 아주 여러 번 접촉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멜기세덱**과 수없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언급한다.

93:9.8 (1023.5)

이삭 · 야곱 · 요셉에 대한 히브리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사실과 다른 것을 많이 담고 있고,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였던 시절에 **히브리** 사제들이 이 기록들을 수집할 때, 의도하여 내용을 변경한 것도 있고, 뜻하지 않게 변경된 것도 있다. **케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다. **하갈**처럼 그 여자는 다만 첩이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로 갔다. **아브라함**은 기록이 가리키는 것처럼 아주 늙지는 않았고, 아내는 훨씬 더 젊었다. 나중에 **이삭**이 기적 같이 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나이는 깊이 생각한 끝에 수정되었다.

93:9.9 (1023.6)

유대인의 민족 자부심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였던

시절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오그라들었다. 민족의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다른 극단, 국가와 민족의 자기 본위로 넘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모든 다른 종족 위에 자신들을 높일 생각으로 그들의 전통을 왜곡하고 곡해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른 민족 지도자들을, 바로 **멜기세덱**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올리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모든 기록을 주의 깊게 편집했다. 따라서 **히브리** 서기관들은 발견할 수 있는 대로 이 중대한 시절의 기록을 모조리 없애 버렸고, **싯딤** 전투 이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이야기만 보존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바치는 것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93:9.10 (1024.1)

그래서, 멜기세덱의 모습을 놓치면서, 그들은 약속된 수여

아들의 영적 사명에 관하여 이 비상시 **아들**의 가르침을 또한 못 보고 놓쳤다. 이 사명의 성질을 아주 완전히, 완벽하게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 중에 거의 아무도, **마키벤타**가 예언한 대로 **미가엘**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93:9.11 (1024.2) 그러나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 중에 하나는 **멜기세덱**의
사명을 알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최고자의 사제**, 이
멜기세덱은 또한 평화의 임금이었더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삶을 시작한 날도 마지막 날도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진 까닭에, 그는 사제로 계속하여 거하더라.” 이 저자는 나중에
나타나는 **미가엘** 수여의 종류로서 **멜기세덱**을 일컬었고, **예수**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아서 언제까지나 봉사자”였다고 확인하였다.
이 비교는 무척 유감스럽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가 세계에 자신을
수여할 때 근무하던 “열두 **멜기세덱** 관리자 서열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유란시아**를 책임질 임시 권리를 받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었다.

10.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93:10.1 (1024.3) **마키벤타**가 육신화한 여러 해 동안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들은 11명으로서 활동했다. **마키벤타**는 비상시 아들이로서 그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실을 열한 동료에게 알렸고, 그들은
그가 육체를 벗어날 기술을 즉시 준비하고, 안전하게 최초의 **멜기세덱**
지위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살렘**에서 사라진 뒤 사흘째에, 그는
유란시아에 배치 받은 동료 11명 사이에 나타났고, **사타니아**
606번에서 행성 관리자의 하나로서, 중단된 그의 생애를 다시
시작했다.

93:10.2 (1024.4) **마키벤타**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가 시작한 것과 똑같이, 갑자기 예식을 차리지 않고 자신 수여를 마쳤다. 그의 출현이나 출발에 아무런 특별한 발표나 전시가 따르지 않았다. 그가 **유란시아**에 나타난 표시로 부활시 출석의 점검이나 행성 섭리 시대의 종결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비상시 수여였다. 그러나 **아버지 멜기세덱**이 그를 공식으로 책임에서 해방하고, 그의 비상시 수여가 **네바돈**의 최고 집행자, 곧 **구원자별의 가브리엘**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통지를 받기까지, **마키벤타**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그의 체재를 끝내지 않았다.

93:10.3 (1024.5)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그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의 후손의 일에 계속하여 큰 흥미를 가졌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켄** 족속과 서로 결혼해서 생겨난 **아브라함**의 후손은, **살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개념이라도 오랫동안 계속 품고 있었던 유일한 핏줄이었다.

93:10.4 (1024.6) 바로 이 **멜기세덱**은 뒤이은 열아홉 세기를 통하여 내내, 많은 선지자·예언자와 함께 줄곧 일했고, 이처럼 **미가엘**이 땅에 나타날 때가 무르익기까지 **살렘**의 진실을 살려 두려고 애썼다.

93:10.5 (1025.1) **마키벤타**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승리할 때까지 행성 관리자로서 줄곧 일했다. 그 뒤에 24 지도자의 하나로서 **예루셈**에서 **유란시아** 근무에 부속되었고, 겨우 최근에야 **예루셈**에서 **창조 아들**의 개인 대사 자리로 승진했으며, **유란시아**의 **영주** 대리 직함을 지닌다. **유란시아**가 사람 사는 행성으로 남아 있는 한,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아들 계급의 임무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의 봉사자로 남아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93:10.6 (1025.2) **마키벤타**의 수여가 **유란시아**에서 비상시 수여였으니까, 그의 앞날이 무엇일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 집단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영구하게 잃었을지 모른다. 최근의 판결이 **에덴시아의 최고자들**로부터 내려왔고 나중에 **유버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확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수여된 이 **멜기세덱**이 타락한 **행성 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정해졌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점에서 우리의 추측이 옳다면, 이것이 매우 있음직하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몸소 다시 나타나서, 어떤 변경된 방법으로, 폐위된 **행성 영주**의 직책을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금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직함을 실제로 지니는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 영주** 대리로서 활동하려고 땅에 나타날지 모른다. **마키벤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앞에 말한 추측이 아마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암시한다.

93:10.7 (1025.3) **유란시아**에서 승리함으로 **미가엘**이 어떻게 **칼리가스티아**와 **아담**, 이 둘의 계승자가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행성에서 **평화의 왕**이 되고 둘째 **아담**이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게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대리라는 직함이 수여되는 것을 본다. 그가 또한 **유란시아의 물질 아들** 대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대하지 않고 전례 없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곧 **아담**과 **이브**가 아니면 그들 후손 가운데 더러가 **유란시아의 둘째 아담**의 대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미가엘**의 대표로서 행성으로 언젠가 돌아올 것인가?

93:10.8 (1025.4) **심판 아들과 삼위일체의 교육 아들들**이 앞날에 확실히 나타나리라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추측은, **창조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분명한 약속과 관련하여, **유란시아**를 앞날이 확실치

많은 행성으로 만들고, 온 **네바돈** 우주에서 가장 흥미 있고 관심을 끄는 구체 중의 하나로 만든다. 이것이 아주 있음직하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 시대에 다가가는 어떤 미래 시대에,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탈퇴 사건들이 마침내 판결된 뒤에, **심판 아들**이나 아니 **삼위일체의 교육 아들들** 뿐 아니라, **마키벤타 · 아담 · 이브**, 그리고 **그리스도 미가엘**이 동시에 **유란시아**에 오심을 우리가 구경할 수도 있다.

93:10.9 (1025.5) **유란시아** 지도자, 곧 24 상담자로 이루어진 **예루셈** 집단에 **마키벤타**가 있다는 것은, 그가 진보하고 승천하는 우주 계획을 거쳐서,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까지도, **유란시아** 필사자들을 따라가도록 운명이 정해졌다는 믿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계급의 의견이었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이처럼 **파라다이스**로 가는 모험에서 지구의 동료들을 따라가도록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93:10.10 (1025.6) 1천 년 미만 전에, 옛날에 **살렘**의 현자였던 바로 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1백 년이 되는 기간에 행성에 거주하는 총독으로 행동하면서, **유란시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다. 그리고 행성의 사무를 지도하는 지금 체계가 계속된다면, 1천 년이 조금 지나서 같은 자격으로 돌아오도록 예정되었을 것이다.

93:10.11 (1026.1) 이것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이니, 그는 일찍이 **유란시아** 역사에 관련을 가지게 된 가장 독특한 모든 등장 인물 중의 하나요, 너희의 불규칙하고 특이한 세계가 앞날에 겪는 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을지도 모르는 성격자이다.

93:10.12 (1026.2)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

[103]: ^{93:0.2} 사고가 생겼을 때 임시로 책임을 맡는 관리자를 말한다.
